

방과후학교 프로젝트 미술반 공공미술프로젝트

치유와 위안을 주는 어린 약사들

지난 5월 5일 무지개축제에서 방과후학교의 미술반 어린이들과 교사가 함께 공동작업한 퍼포먼스가 11시 30분부터 2시까지 있었다.

치유와 거담담을 상징하는 이 작업은 직사각형 모양을 한 약 10m길이의 설치물인 흰색 천막과 그 주변에서 이루어졌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고통과 상처에 대한 과거를 간단히 적은 후 신발을 벗고 물을 지나갔다. 그 후 밖으로 나와서 세족식에 참여했다. 방과후학교 교사들이 흰색가

운을 입고 세족식을 하면, 천막 옆에는 학생들이 '약사' 복장의 흰색 가운을 입고 약을 조제해 주었다. 그 약은 학생들이 심리적 안정과 사랑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사탕과 비타민 등을 섞어 만든 것으로 일종의 플라시보효과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 작업은 주로 어린이들이 참여했다.

플라시보효과 - 약리학적으로 비활성약품을 약으로 환자에게 주어 유익한 작용을 나타내도록 유도하는 효과

[아이스에이지1]

30CUP예배팀이 준비한 어린이들을 위한 영화상영 21일 오후 4시 지하 중예배실



부국 소망재활원 준공



본지 기자는 119사역팀과 함께 폭설로 인해 재난을 당한 장애인시설, [소망재활원] 공사현황을 취재하기 위해 현장 방문했다. 전라북도 완주

군 구의면 신정리에 위치한 이 장애인 시설은 지난해을 폭설로 인해 사용할 수 없도록 손상되었다. 이 소식을 접한 119사역팀은(팀장 김영중집사 외)은 현장을 방문하여 당회에 보고하였고, 당회는 이 시설의 복구지원을 결의했다. 2개월여 간의 공정은 김윤섭 집사(인테리어 전담), 조영철 집사, 이상옥 집사 등의 현장 투입으로 더욱 원활하게 마무리 되었다.

시설의 한 담당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공사가 잘 마무리되었고, 지금은 소망재활원에 소망이 가득 넘치고 있다고 전했다. 취재를 마치고 현장 주변을 돌아본 기자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개함을 볼 수 있었다.



공사전



공사후

(1면에 이어서)

어르신 초청 잔치, 어버이날은 맞아 70세 이상 어르신 100여명 초청



식사와 레크레이션 시간을 마친 참석자들은 고경봉 교수(연세대의대 정신과, 주님의교회 집사)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해소에 관한 강의를 들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지만 그 스트레스가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으며, 정신과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적당한 스트레스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건강을 위협하지 않고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훈련과 몸의 균형을 지키는 여러 가지 방법을 조목조목 강의했다.

하프타임 사역 팀에서는 6월말 경 아와 나들이를 계획하고 있다.



고경봉교수

아기 교회 첫나들이



최재호 집사와 김나리 집사(3-3구역)의 아기 소망이가 처음으로 주님의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현재 살롱 찬양대 찬양대원으로 활동 중이기도 한 이들 부부는 소망이에 대한 바램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항상 주님 안에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성장하는 소망이가 되기를 바란다."며 소원을 말했다.

남한산성등반, 안수집사회와 2남선교회

안수집사회와 2남선교회는 지난 4월 29일 남한산성을 등반했다. 등반에 참여한 회원들은

앞으로 단합된 모임을 자주 갖고 교회를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앙코르합창단 특순

지난주일(5월 7일) 2,3부 예배 중 30여명의 앙코르찬양팀의 특별순서가 있었다. 교회의 60세 이상의 어르신들로 구성된 앙코르찬양팀이 어버이주일을 맞아 특별한 찬양을 준비한 것이다. 아름답고 정성스럽게

준비된 찬양은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을 감동시켰고, 변함없는 봉사와 헌신의 본을 보이고 있는 삶의 모습을 통해 '편하고 쉬운' 생활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려는 젊은이들에게 교훈을 주기도 했다.



함즐함울

교회의 안팎에서 성도들이 경험하는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모아 교우들에게 전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성을 확립해가는 본지의 목표를 수행할 기사를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주님의교회 등록교인입니다.

기자신청 및 신문기사 문의 ontesta@nate.com

2006년 표어
하나님을 즐거워 하라

1.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2.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교회
3. 청소년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
4. 주님의교회들을 번식하는 교회

함즐함울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 WEEKLY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5)

“온 교회 가족이 하나 되었던 감동의 순간, 잊을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물론 교회와 예배에 낯선 이웃들까지도 초대된 은혜의 잔치



2006년 5월 5일 정신여자중고등학교에 무지개가 떠올랐다. 그것은 기쁨과 희망, 그리고 사랑의 무지

개였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 무지개 축제는 사랑을 든 손녀에서부터 캐릭터 옷을 입은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끝없는 울리는 아들의 모습에서 국밥을 덜어주시는 어머니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춤을 추는 청년에서 노래를 부르시는 어르신들까지 우리가 한 가족임을 몸으로 마음으로 확인하는 은혜의 잔치였다.

이번 제4회 무지개축제는 처음으로 주일이 아닌 어린이날에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였다. 1부 무지개의 기쁨(공동체 운동회), 2부 무지개의 희망(먹거리/놀이/축제 마당), 3부 무지개의 사랑(나눔의 콘서트)으로 진행된 이 번 행사에는 길가에교회를 비롯하여 1,500여명의 성도들이 3부까지 참여하였고, 여러 소그룹을 통해 교회와 예배에 낯선 이웃들까지도 초대되어 함께 즐거움을 나누었다.

길가에교회 자선 바자회



지난 4월 29일(토) 오전 10시부터 동화중고교 앞길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자선바자회가 길가에교회 주최로 열렸다. 독자가와 자선단체로부터 기

증반은 각종물품을 팔아 그 수익금 전액을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는 일일장터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바자회는 교회 성도들 뿐 아니라 많은 이웃주민들도 함께 참여하였다. 길가에교회 성도들은 개장 전부터 바자회 준비로 매우 분주했다. 전을 만들기 위해 반죽을 하고 계산에 사용할 쿠폰을 분류하고, 물품을 판매대에 비치했다. 이인호 목사의 지도로 모든 준비를 마친 '길가에 장터'는 개장부터 많은 손님들로 북적대며 기분 좋은 출발을 했다. 떡볶이, 오뎅, 순대, 팔죽 등 먹을거리가 길을 지나던 행인들까지 함께 참여하게 했고, 각종 옷이며 가방, 신발, 악세사리, 식기류, 책, 자전거 등등 다양한 물건이 저렴한 가격에 판매 되어서 개장 한지 한 시간도 안돼서 대부분의 물건들이 팔렸다.

길가에교회가 세워진 후 열린 첫 번째 바자회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화창한 날씨 속에서, 성황리에 끝났다. 이번 이웃사랑 나눔 바자회에서 얻은 수익금은 그 지역의 극빈층 이웃에게 전달되어 소중하게 사용된다고 한다.

어르신 초청 잔치, 어버이날은 맞아 70세 이상 어르신 100여명 초청

5월 9일(화) 복지사역본부 하프타임 사역 팀에서는 어버이날은 맞아 어르신 100여명과 함께 즐거운 오후를 함께 했다. 식사와 레크레이션 그리고 하프타임강좌로 이어진 행사에 참석한 어르신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지난 세월을 잊은 듯 즐거운 한나절을 보냈다. (4면에서 계속)

교회와 예배에 낯선 이웃을 위한 4부예배

- “Dying Young” _ 오늘연주팀
- “영화속 여자와 남자” _ VJ박은애
- “남과 여, 바른 해답을 찾아서” (유다서 1:2) _ 이호 목사
- “사랑은...” _ 김창안 은영희

◆ 희망의 트랙, 교회학교' 여름수련회 ◆

부 서	기 간	장 소
영아부	7월 9일	교 회
유아부	7월 22-23일	교 회
유치부	7월 29-30일	교 회
썩트네	8월 19-20일	교 회
유년부	7월 23-25일	안성염마농장
초등부	7월 24-26일	양평관광농원
소년부	7월 21-23일	양평관광농원
레인보우	8월 13-15일	안성염마농장
중등1부	8월 3-5일	호렙 오대산 수련원
중등2부	8월 10-12일	호렙 오대산 수련원
고등부	7월 31일-8월 2일	호렙 오대산 수련원

하나님의 자선강,
소년 다윗과 선지자 나단

사무엘상17:45-47, 하12:7-17

[5월 30CUP예배]

일시 : 5월 21일 오후 4시
장소 : 대예배실
말씀 : 김현영 목사



1주년 감사예배 신행 DVD 판매 중





무지개 축제, 주님의교회가 한 몸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는 공동체 잔치!

“우리의 모두의 일상에서 또 다른 무지개를 꿈꿉니다.”

무지개 축제는 주님의교회가 한 몸을 이루고 있음을 상징하는 실제적인 공동체 잔치이다. 주님의교회는 매주 주일 출석 성도가 5,000여명(주일학교 포함)에 이르지만, 정작 우리가 알고 가족처럼 알고 지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가끔은 예배실에서도, 교회 식당에서도, 주차장에서도, 서먹한 웃음으로 형제, 자매를 지나치곤 한다. 무지개 축제는 조금 더 서로에게 나아가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바램이요, 기도이다.

2006년 5월 5일 우리 모두는 무지개 색 옷을 입었습니다. 가슴에는 내 이름이 적힌 이름표를 달았습니다. 두 손에는 가족의 손을 잡고 그들과 함께 뛰고 땀 흘렸습니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크게 웃어 보았습니다. 줄을 서 기다리는 것도, 옷에 아이스크림이 묻은 것도 상관치 않았습니다. 어른이 되어 놀이에 참여한 것도, 정장 대신 동화 같은 옷을 입은 것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찬양하

며 축복하며 부여주신 은혜에 감사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의교회의 한 가족인 것이, 길가의교회의 한 형제, 자매인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우리 모두는 참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무지개를 꿈꿉니다. 우리의 가정에서...우리의 교회에서...우리의 사회에서...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